



## 사랑의 집

《애들아, 우리 어린이꿈관에 가자.》

소년단반장인 철호의 말에 우리 소년단 반동무들은 모두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습니다. 가고 또 가도 계속 가고싶은 과학기술전당의 어린이꿈관이기때문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일요일 아침 언제나 학생소년들로 흥성이는 과학기술전당의 어린이꿈관을 찾아 떠났습니다.

속셈에 도착한 나는 동무들과 한동안 웅장 화려한 과학기술전당의 전경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은 아니었지만 울적마다 무엇인가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배움의 전당입니다.

《뭘 그렇게 보고있어? 빨리 들어가자.》

동무들이 재촉하는 바람에 나는 꿈많은 어린이들과 탐구의 나라를 펼친 학생소년들이 즐겨찾는 어린이꿈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일요일이여선지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들은 제각기 아동열람실, 과학활동무대, 지능계발교실, 과학의 동산구역, 지혜의 샘구역, 자연탐험구역 등으로 헤어져갔습니다.

나는 마치도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과학자, 연구사이기라도 한듯 자못 진중한 자세로 가는 동무들을 보며 못박힌듯 그 자리에 서있었습니다.

가슴을 적시며 차오르는 걱정으로 하여 말입니다.

아, 배움의 열망으로 가득찬 우리 학생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어린이꿈관!

문득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구절구절 다시금 되새겨졌습니다.

정말 생각도 깊어집니다.

최상의 문명을 향해 솟구치는 오늘의 시대에 미래의 주인공들인 우리들을 어릴 때부터 창조적인 두뇌와 재능의 싹을 틔워 앞날의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해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배움의 전당인 과학기술전당에 동심의 세계, 꿈의 세계를 펼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품속에서 펼쳐진 어린이꿈관은 그대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는 사랑의 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의 집들이 이 땅우에 솟아났습니까.

우리 학생소년들의 정든 집인 송도원국제 소년단야영소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여기 평양에만 아니라 각 도에 있는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들...

생각할수록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안겨와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의 집, 정녕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을 언제나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며 강성조선의 미래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행복의 집인것입니다.

걱정에 차오른 나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웨쳤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는 우리모두의 사랑의 집, 행복의 집인 사회주의 내 나라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이 되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속 결의를 다지며 아동열람실로 들어섰습니다.

평양시 선교구역 장원초급중학교 김 신 혁